

남자저고리 원형제도법 개발을 위한 연구(2)*

-깃구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asic Pattern Drafting Method Development of Men's Jō-go-ri*

-Collar Construction (2)-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정옥임

Dept. of Home Economics, Cho-Sun Univ.

prof. : Chung Ok 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고찰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According to the design method for constructing the Korean Men's Jō-go-ri(the traditional Korean jacket)collar, there are differences in form after its completion. In the construction design of the midsection of the gusset as in that of the basic pattern Jō-go-ri, not only was the positioning of the two sides of the collar not smooth, but also, when the collar strip(Dongjung) was attached, there would be an imbalance on one side or the other so that it was difficult to achieve symmetry. Therefore in this project, by applying the pattern design of the gusset midsection to that of the collar midsection, not only did attaching the collar(Kit) and the collar strip create a visual effect by equalizing the lengths of the two sides, but the construction was also easy.

This method of construction introduces the three-dimensional aspect of the human form in its conic, spherical and cylindrical aspects, so that, through schematizing the scientific character of Korea's clothing, its appropriateness is verified. As a matter of fact, since there is no standadization of pattern whether for educational use or for mass-produced clothing, so that even the patterns used in computer-assisted design are executed according to the designer's personal skill, the reality is that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the quality has not been uniform. For this schematization, inverse calculation of measurements pertaining to the calculation formula and of teaching materials has been referenced. In particular, the partial regulation of the calculation formula pertaining to the basic pattern construction, the method of making the collar midsection,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and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 extreme and mean ratio adjustment, can be adjusted for all measurements, thereby providing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criterion and the possibility of the standardization of construction methods.

The production method for the basic pattern design is as follows:

- 1) The conic angle for the Jō-go-ri's girth, length and neck width is fixed at 70(72) degree.
- 2) The radius of the cone is sleeve length.
- 3) The bust girth calculation formula is $B/4 + 2.5\text{cm}$.
- 4) The armhole formula is $B/4 + 2.5\text{cm}$.
- 5) The neck width formula is $B/10$.
- 6) The ratio of the collar junction(width of collar(Kit) + width of collar strip(Dongjung) to the gusset length is 5: 8.
- 7) The length of the side seam is a length intersecting the armhole line and the conic radius of sleeve length, that is an arc that exceeds the length of the Jō-go-ri's midse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저고리에서 깃은 여밈의 역할을 하는 부위이면서 중심에 위치하여 의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장식적인 미를 표현하는 유일한 사선이기도 하다.¹⁾ 동정과 더불어 미의 초점이 되기도 한 저고리 깃에 대한 연구에서는 목이 단연 인체의 주체적 부위인 동시에 의복구성의 기준선으로써 중요하다.²⁾ 저고리에서 깃 구성 형태의 基體인 頸部는 인체구조상으로 볼 때 경부를 지지하고 頭部를 體幹部와 연결하는 부위로서 생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요하다. 의복 착용 시에는 頸部에 被服이 걸쳐지는 支持부 위중의 하나가 되며 인체 동작 시에는 운동영역이 넓고 위치 상으로는 顔面에 인접해 있으므로 피복을 디자인할 때나 구성할 때 주목해야 한다.³⁾ 그러므로 저고리에서 깃의 斜線 角度는 의복의 균형을 이루는 중심의 위치라는 것 외에도 美的, 構成的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위인 것이다. 그래서 저고리에서 깃과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저고리 전체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의 요소가 된다.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CAD의 보급으로 線의 변화를 모니터 상에서 손쉽게 조작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CAD는 디자인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는 획기적으로 기여하나 미적 판단에 의

한 디자인 결정은 디자이너의 몫이다.⁴⁾ 그 때문에 CAD에 사용되는 패턴도 각각의 개인기술에 의해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設計 品質이 균일하지 못하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복에서의 원형구성 설계는 標準化 될 수 있는 산출식의 導出이 필요하게 된다. 前報의 여자저고리 깃 구성⁶⁾에서나 남자저고리 원형구성을 위한 기초연구⁷⁾에서도 분석된 내용이지만 구성상, 조형상의 문제점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착장 되어야 할 의복의 구성 형태가 不一致하게 설계된 원형을 교수·학습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 옷도 보다 연구되고 우리 것으로 차별화될 구성설계로 제도법의 표준화는 물론 우리 옷 구성원리의 상징적 의미를 통찰하는데 가치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의복의 3차원 형태는 인체에 바탕을 두고 계획되어야 하며 의복 내부의 평면적인 구조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⁸⁾ 그런데 교수·학습자료에서 의생활 내용이 교수 면에서나 학습 면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연구되고 개선되어 언제나 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점에서 볼 때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수·학습자료 내용 중 남자저고리 원형제도법에서 깃 구성을 중심

으로 한 고찰은 저고리 전체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의 요소가 되며 원형개발을 위한 핵심자료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고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자저고리에 대한 것으로, 부분적 형태구성이 김문자⁹⁾와 백금현¹⁰⁾에 의해 이루어진 정도이고 저고리 원형에 대한 것으로는 정옥임¹¹⁾¹²⁾의 연구가 있으며 남자저고리 제작에 관한 것으로는 박금래¹³⁾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방법

前報의 남자저고리 원형제도법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존 원형제도법을 재 고찰하면서 角度에 의한 깃 중심 원형설계를 위해 참고치수에서 <중>치수에 해당하는 가슴둘레 92cm, 저고리길이 60cm, 화장 74cm로 각각의 원형을 제도하여 비교하고 각도에 의한 설계적용 가능성도 시도해 보았다. 더불어 실제 한복 전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간치수에 해당하는 남자저고리 각 부분치수를 알아보기 위해 1998년 3월 2일부터 3월 16일 까지 광주광역시 <우리웃 사랑회> 회원들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복전문점 12곳을 대상으로 만드는 치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원형산출식을 逆算하여 도출하고 이를 교수·학습자료의 원형 산출식과 비교하였다.

2. 연구내용

- 1) 각각의 저고리 원형을 동일 중간치수(가슴둘레 92cm)로 제도하여 깃의 구조와 형태를 비교한다.
- 2) 실제 한복 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원형산출식을 치수로 역산하여 도출한다.
- 3) 교수·학습자료의 산출식과 한복 전문점의 산출식을 비교한다.
- 4) 쉰중심 원형제도법과 깃 중심 원형제도법의 차이를 비교한다.
- 5) 원뿔을 이용한 저고리 원형제도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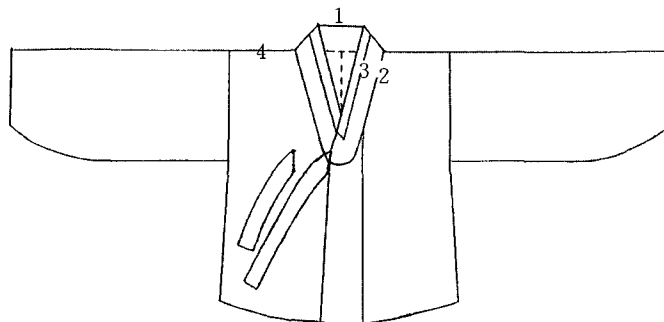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범위는 「한복구성」이라는 대학교재에 준하는 패턴만을 이용하였고, 맞춤저고리의 경우는 한복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치수를 자료로 원형산출식을 역산해 본 경우이기 때문에 다소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내용에서 제도와 형태의 불일치한 깃 구성 법을 편의상, 형태상의 깃 모양으로 통일시켰음을 밝혀둔다.

4. 용어의 해설

각각의 원형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 O형 : 김분옥의 저고리 본
- C형 : 김분철의 저고리 본
- J형 : 손경자의 저고리 본
- W형 : 이주원의 저고리 본
- PI형 : 박경자·임순영의 저고리 본
- H형 : 조정희의 저고리 본
- 1 : 깃고대 상방(上方)
- 2 : 깃 내연선
- 3 : 깃 외연선
- 4 : 깃고대 각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저고리 길에서의 깃 구조선과 깃 형태의 비교

저고리 구성에서 핵심이 되는 목은 깃 구성의 미적, 구성적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선이 된다. <그림 1>은 교수·학습자료에 제시된 원형을 동일치수(가슴둘레 92cm)로 제도하여 左右의 길을 완성된 상태로 배치하여 깃 구성 선을 비교한 것이며, <그림 2>는 <그림 1>의 깃구성선을 중첩시켜 비교해 본 것으로 여기에서 보면 옷깃이, 셔츠나비, 깃달림의 위치, 특히 안 깃달림의 구성선이 크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고, 앞 도련의 겹선풀 굴림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사진 1>은 <그림 1>의 깃 구성 선에 깃을 달았을 때의 형태이다. 보느바와 같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깃 여밈과 깃 상방나비가 각 원형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알기쉽게 計量的으로 만들어 본 것이 <표 1>이다. 그리고 <그림 3>은 <사진 1>의 깃달림을 펼쳤을 때의 모양이다.

여기에서 보면 제도했을 때와 만들었을 때 뒷깃 상방치수에 차이가 없는 원형은 <PI형>이다. 뒷깃 상방치수 대칭정도에서는 <PI형>과 <H형>이 오른쪽

으로 치우쳐 있고, 앞목 노출길이(V-jone) 좌우대칭 정도에서는 <H형>이 1.9cm, <C형>이 1.7cm 왼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원형에서 깃 길이산출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표 1>과 같다. 그러나 안깃길이 산출에서 보면 산출 값 길이와 실제길이의 차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O형>이 48~5.3cm까지, <PI형>이 2cm, <H형>이 48~5.3cm까지 차이가 난다. 또 중심선을 기점으로 뒷깃 상방나비의 불일치라던가 깃 내연 좌우치수의 불일치는 안깃의 위치설정이 불명확하게 설정되므로 해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직선길이에 대한 깃구조선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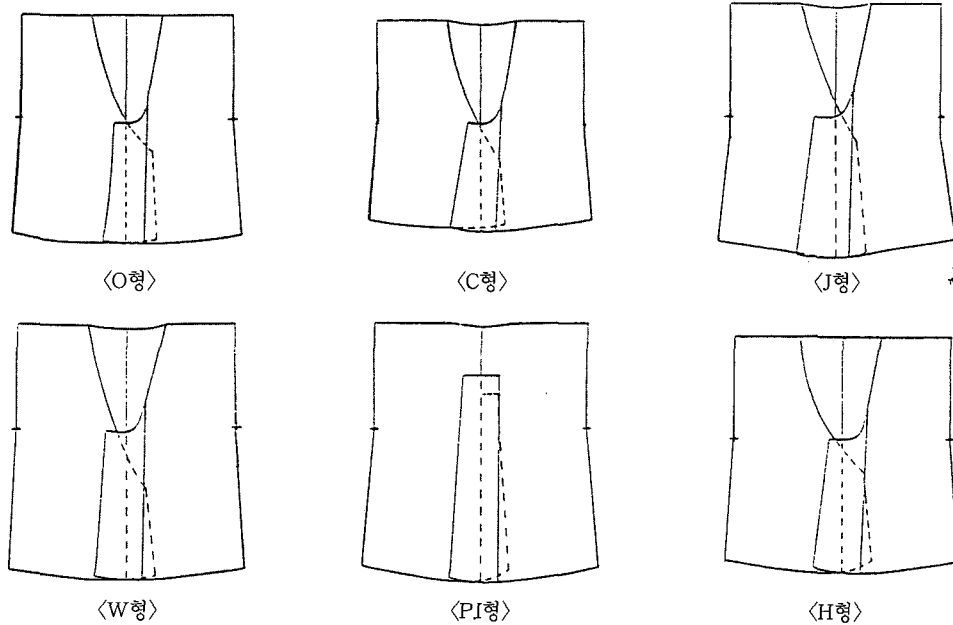
2. 저고리 제도법에서의 오류 - 셔츠나비 중심제도법

이제까지의 저고리 원형제도법은 셔츠의 크기를 결정후 깃을 다는 셔츠중심 원형제도법이었다. 이때 깃나비는 셔츠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깃 구성 선을 그리기 위한 설정기준이나 산출방법이 없기 때문에 <표 1>에서와 같이 만들었을 때의 형태를 가늠하기 어려울뿐더러 깃길이 결정에서도 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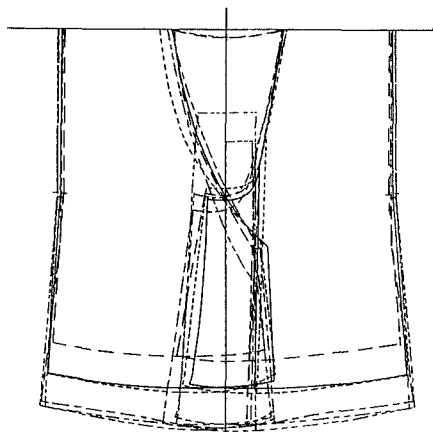
<표 1> 제도했을 때와 완성했을 때의 저고리 치수의 차이

(단위 : cm)

항목 자료	제도시 깃고대 상방 치수(1)	완성시 깃고대 상방 치수(2)	(1)과 (2)의 차	완성시상방 좌우차			앞목노출길이 좌우차(V-jone)			깃내연 좌우치수		각원형에서의 깃길이계산	각원형의 안깃길이 산출값(3)	완성시의 실제 길이(4)	(3)과 (4)의 차	비 고
				좌	우	차	좌	우	차	안깃 내연 길이	겉깃 내연 길이					
O형	8	5.8	2.2	3	2.8	0.2	15	14.9	0.1	41	33	겉깃+고대+ (겉깃+5~6)	31~32	36	4~5	
C형	6.4	4.2	2.2	2.2	2	0.2	17.2	15.5	1.7	42	36	겉깃+고대+안깃	—	36	—	
J형	8	5	3	2.5	2.5	—	11.2	11	0.2	47	34	겉깃+고대+ (겉깃+6~8)	34~36	36	0~2	
W형	8.8	7.6	1.2	3.6	4	0.4	16	16.4	0.4	42.6	33	겉깃+고대+안깃	—	41.6	—	
PI형	9	9	—	4	5	1.0	15.2	14.6	—	44*	34	B/4+(B/10+0.2)+ (겉깃+깃나비+3)	37	39	2	*안셔츠에서 만나는길이가 2cm짧음
H형	7.4	5.8	1.6	2.4	3.4	1.0	20.5	18.6	1.9	40.8	32.8	겉깃+고대+안깃 (겉깃+5~6)	29.5~30.5	34.8	4.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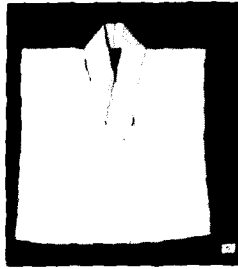
〈그림 1〉 깃을 달지 않았을 때의 깃 구성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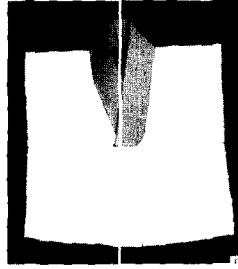
- O 양 _____
- C 양 _____
- J 양 _____
- W 양 _____
- PI 양 _____
- H 양 _____

〈그림 2〉 각각의 원형제도법에서 깃구성선의 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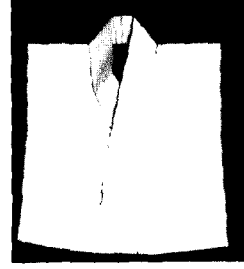
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표 2〉는 교수·학생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겹섵 안섵의 크기 결정방법인데 겹섵 안섵산출방법에 이용된 치수항목은 가슴둘레, 겹섵길이, 깃나비, 깃고대, 겹섵나비등 다양하다. 이중 깃나비를 섵나비결정에 이용한 원형은 〈W형〉, 〈PI형〉, 〈H형〉이 있는데, 이들은 깃나비가 결정되어야 섵나비가 결정되므로 이론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사진 1〉에서와 같은 깃의 좌우 불일치가 생기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는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림 1〉의 깃달림을 펼쳤을 때 제도나 마름질에서 직선이던 깃이 직선이 되지못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깃고대의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원형으로 저고리를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깃상방이 목에서 떨어져 뜨게되고 심하면 깃선이 꼬이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시중의 한복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치수산출식과 비교해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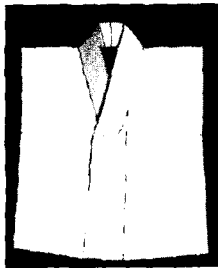
<O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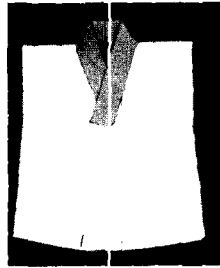
<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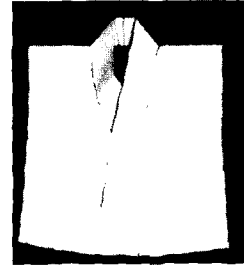
<J형>



<W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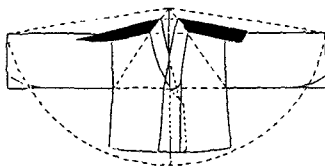


<PJ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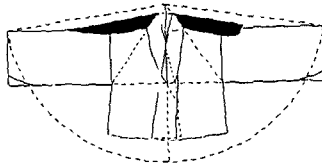


<H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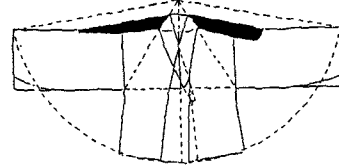
<사진 1> 깃 구성선에 깃을 달았을 때의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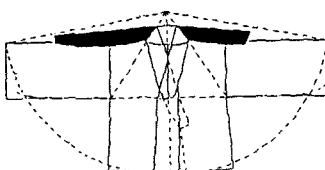
<O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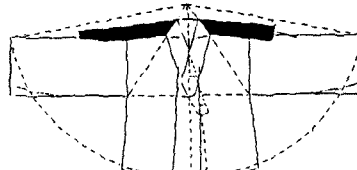
<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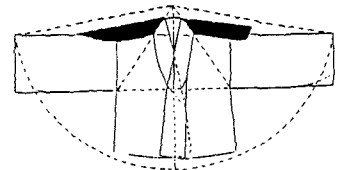
<J형>



<W형>



<PJ형>



<H형>

<그림 3> 각각의 원형제도법에서 깃말림을 펼쳤을 때의 모양

3. 맞춤 옷집에서의 저고리 산출방법

교수·학습자료용 남자 저고리 산출방법과 한복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산출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알아보기 위해 한복전문가로서 광주광역시 산하 후원단체인 <우리옷 사랑회>회원들 12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중간치수로 사용하는 가슴둘레 96~97cm에 해당하는 저고리 각 항목의 치수를 기록하도록 하

<표 2> 교수·학습자료에서의 겹섷, 안섷 산출방법

(단위 : cm)

항목 자료	겹 섷		안 섷		비 고
	위	아 래	위	아 래	
O형	$(B/4 \times 2/5) - 2 \sim 3$	$(B/4 \times 2/5)$	겹섷위 $\times 3/4$	겹섷아래 $\times 3/4$	*산출식이 없 는 곳은 길이 의 분할방법을 사용한 것임
C형	겹깃길이 $1/4+$ (겹깃길이 $1/42/3$)	-	섷아래 $\times 2/3$	폼 $2 \times 1/4$	
J형	-	-	깃고대 $\times 1/4$	겹섷-5	
W형	깃나비 $+1.5 \times 2$	윗섷+2	-	-	
PI형	깃나비+2	윗섷+3	깃나비-3	깃나비	
H형	깃나비 $+1.5 \times 2$	윗섷+2	B/4	-	

여 폼치수, 깃고대치수, 진동치수값을 이용하여 교수·학습자료용 산출 식을 참고하여 산출 식을 逆算해 본 것이<표 3>이다.

이 자료에서 도출된 폼과 진동, 고대산출방법을 교수·학습자료의 산출방법과 비교해보면 폼에 있어서는 맞춤형복집의 산출방법이 조금더 여유가 있고, 진동에서는 폼에 적용한 산출방법보다 여유분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깃고대 산출방법에서는 교수·학습자료의 산출 값보다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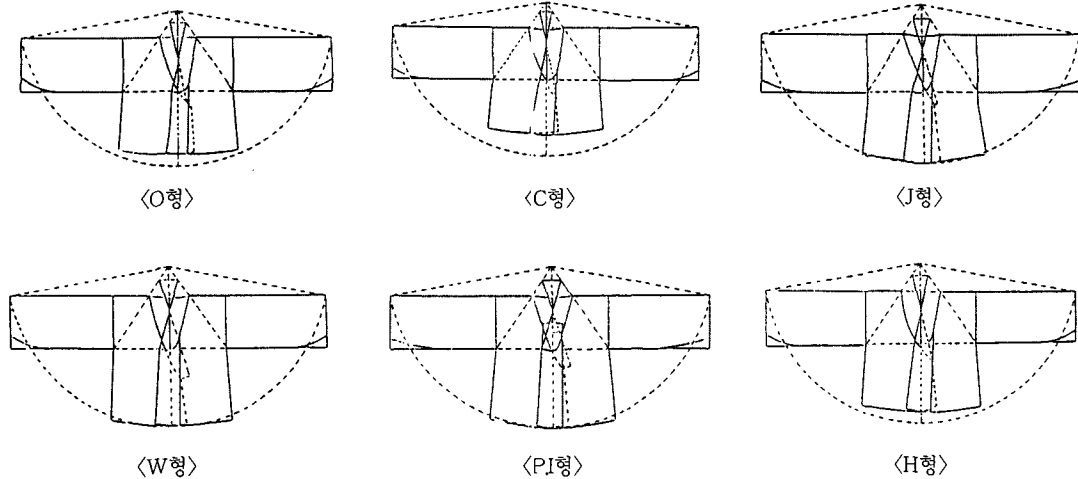
출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자료의 공통점을 간추려보면 폼에서는 $B/4+2.5 \sim 3cm$, 깃고대 산출방법에서는 B/10를 그중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역산으로 알 수 있었다. 진동에서는 교수·학습자료가 $B/4+2 \sim 2.5cm$ 인 반면 맞춤형복집의 진동이 $B/4+2.5 \sim 3cm$ 로 적용하고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항목중 산출 값에서 특히 차이가 난 항목은 안섷나비로 교수·학습자료에서는 윗나비와 아랫나비가 2:3의 비율인데 반해 맞춤형복

<표 3> 맞춤형복집의 남지 저고리 치수와 산출 식

(단위 : cm)

자료	가슴둘레	폼/2	폼산출식	진동	진동산출식	고대나비	고대산출식	길	화장	깃나비	동정나비	수구	겹섷나비		안섷나비	
													위	아래	위	아래
1	96	50.4	B/4+3	29	B/4+5	20	B/10+0.5	67.8	7.8	8	2.6	21.1	10	15	3.5	6
2	97	50.4	B/4+2.75	26.7	B/4+2.5	19.8	B/10	63.5	7.2	5.6	2.5	17.8	7.6	10.7	5	7
3	96	53	B/4+2.5	28	B/4+4	16.3	B/12	62.8	7.63	4.2	1.1	18.5	5.4	6	1.2	2.4
4	97	55.8	B/4+3.65	28	B/4+3.75	21.2	B/10+1	60.4	7.87	7.5	2.5	20	9.6	12	2.5	5
5	96	53.5	B/4+3	27.5	B/4+3.5	21	B/10+1	61	7.6	6.7	2.5	20	8.8	13.5	4	7
6	96	54	B/4+3	27	B/4+3	20	B/10+0.5	61	7.6	5.5	2.2	18	7.6	10	2	10
7	97	57	B/4+4.25	29	B/4+4.75	19.7	B/10	61	7.6	6.5	2.5	20	8.9	11.4	3	5.6
8	96	53	B/4+2.5	26.6	B/4+2.5	19	B/10	62	7.63	5.3	2.5	18	9.6	11.4	2.5	5
9	96	52	B/4+2	26.6	B/4+2.5	20	B/10+0.5	60.9	7.6	5.5	2.5	20	8	10.6	2	6.3
10	96	54.6	B/4+3.3	26.6	B/4+2.5	19.7	B/10	58	7.53	7	2.5	19	8.9	12	2.5	5
11	96	53	B/4+2.5	27	B/4+3	20	B/10+0.5	61	7.6	6.5	2.5	19	8.8	11.4	2.5	5
12	96	53	B/4+2.5	28	B/4+4	19	B/10	60.4	7.63	6.5	2.2	20	8.9	12	3	5.6
평균	96.25 (96)	53.9 (53)		27.5 (26.5)		19.64 (21.2)		61.65	7.65	6.239 (6.23)	2.34 (2.35)	19.28	8.50	11.33	2.80	5.82

* () 안의 숫자는 가슴둘레 96cm를 적용해 보았을때임.



〈그림 4〉 각각의 기존원형에 고대 각을 적용시켜 비교한 예

집의 안설키는 1: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슴둘레 95.2cm인 20세부터 30세까지의 남자목둘레는 44.2cm이고, 뒷목점 33.5cm 상방치수가 36.6cm, 좌우 수평길이 12.8cm로 측정된 이영숙의 연구²⁰⁾조건에 충족되기 위한 깃고대 산출 식은 $B/10+1\text{cm}$ 이고, 깃나비는 7.5cm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선된 제도법 산출식에 맞춤형복집 저고리 평균치수를 대입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기에서 깃나비와 동정나비는 8 : 5의 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제도법 개선 - 깃고대각과 깃나비 중심제도법

저고리 제도법에서 설키 중심제도법과 깃나비 중심 제도법의 차이는 설키와 깃 중 어느 항목이 중심이 되어 원형설계를 하는가의 차이이다. 만약 설키가 중심이 되어 원형설계가 될 때는 설키의 위치가 결정되고나서 깃의 위치와 나비가 결정되고, 깃이 중심이 되어 원형설계가 될 때는 깃의 위치나 나비가 정해진 다음에 설키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방법 모두 고대나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깃나비를 중심으로 원형설계가 될 경우 깃나비가 0.5cm 감소되면 깃 상방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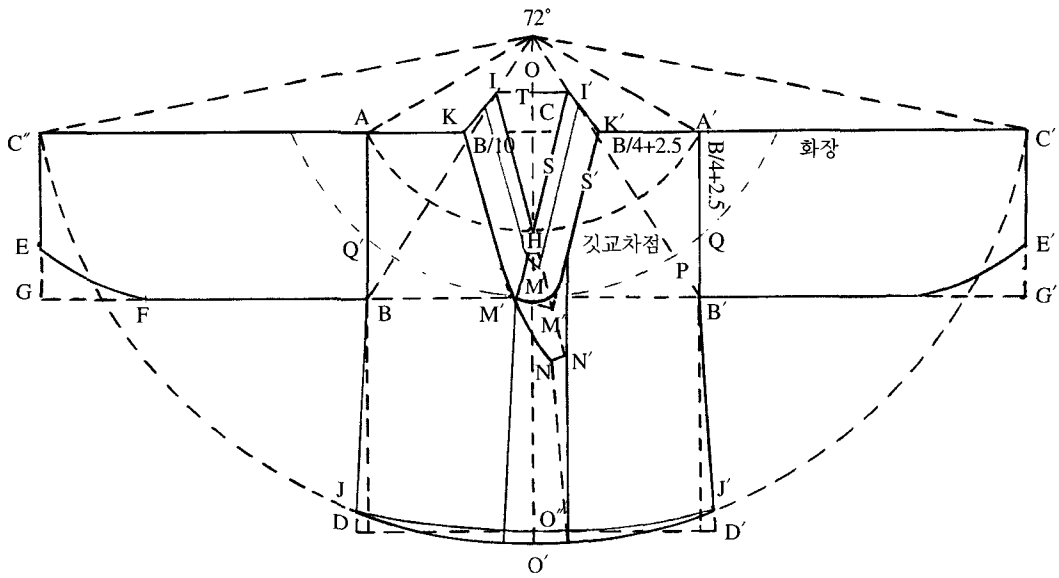
비는 0.25cm 커지고²¹⁾ 깃 나비는 깃의연선 즉 앞중심선의 깃고차점에서 길 쪽인 내연 선을 향해 깃나비가 구성된다. 다시말 하면 좌우 깃겹침분 산출방법이 깃나비에의해 결정된다. 반면 설키중심 제도법에서는 설키가 커지면 좌우 깃 여밈 분이 커지고 앞목노출 V-jone이 적어지는, 즉 깃의연선이 깃나비의 변화 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 〈그림 4〉는 교수·학습자료의 원형제도법에 고대 각을 적용하여 비교해본 것이고, 〈그림 5〉는 설키중심 원형제도법에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체의 부분적 형태를 원뿔이라고 하는 3차원적 개념²²⁾을 도입하여 고대 각을 이용한 깃나비 중심으로 원형을 설계한 남자 저고리 제도법이다. 원형 설계에서의 각도 설정은 $B/2+5\text{cm}$ 인 앞품과 $B/4+25\text{cm}$ 인 겨드랑이점, 그리고 $(B/10) \times 2\text{cm}$ 인 고대점을 지나 중심선을 기준으로 연결을 하면 角 70° 가 되는데 이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깃고대에서 깃나비를 같도록 수정을 할 경우 최종각도는 72° 가 된다. 이 각의 꼭지점에서 앞품선이 되는 진동 끝점 OB와 OB'를 반지름으로하여 원을 그릴 때 앞중심선과 만나는 지점이 깃나비 + 진동의 여유분 + 동정달린 깃의 두께 + 동정나비로 산출된 깃고차점으로 이것이 깃나비 중심제도법에서 핵심이 된

다고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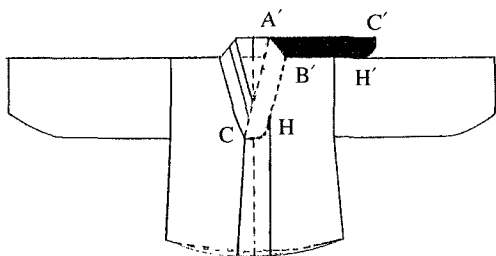
저고리 옆선 올림과 앞섶 도련의 처짐분(내림분)은 꼭지각을 중심으로 화장 길이와 만나도록 원을 그릴 때 지나는 선으로 결정되며 手口의 크기는 역시 꼭지각에서 진동선과 만나는 가슴둘레선, 즉 겹깃코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때 최초 고대각 70°와 만나는 길이 만큼 올라 간다. 그리고 기존의 원형제도에서 가장 차이가 많았던 안깃 길이는 겹섶 內

延線과 만나는 지점, 다시말하면 좌우 깃겹침 길이와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길이와 같다. 이상과 같이 설계한 저고리 원형이 <그림 5>이고, <그림 6>과 <그림 7>은 <그림 5>에서 제도된 겹깃과 안깃을 부분적으로 알기쉽게 오려 펼친 모양이다. <그림 6>에서 겹깃 A'와 C는 A', C'와 같으며 B', H는 B', H'와 같다. <그림 7>의 안깃길이 A와 D는 A', D'와 같고 B, E는 B, E'와 같다. 그리고 <그림 8>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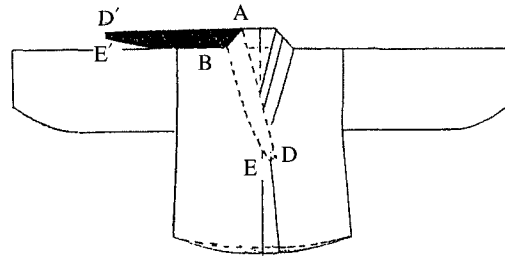


$$MH(\text{깃교차점길이}) = \text{깃나비}(6\text{cm}) + \text{동정나비}(\text{깃나비의 } 5/8) + \text{진동의여유분}(2.5\text{cm}) + \text{동정을 단 깃외연선두께}(0.5\text{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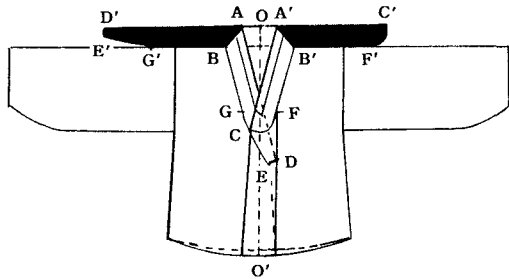
<그림 5> 표준화를 위한 남자 저고리 원형 제도법(cm) 제도순서



<그림 6> 제도된 겹깃을 오려 펼친 모양



<그림 7> 제도된 안깃을 오려 펼친 모양



〈그림 8〉 개선된 남자 저고리 원형제도에서 깃을 펼쳤을 때의 모양

림 6)과 〈그림 7〉의 깃길이를 실제 길이로 펼친 모양이다.

■ 제도순서

1. 저고리폼 A와 A'를 그린다.($B/4+2.5cm$)
2. 진동선 A와 B, A와 B'를 그린다. ($B/4 = 2.5cm$)
3. 확장길이를 그린다.
4. 깃고대($B/10$)를 정한다.
5. 진동선 거드랑이점과 깃고대 B/10점을 연결한다. ($BOB=70^\circ$)
6. 왼팔 꼭지점에서 확장길이를 연결되는 반원을 그린다. (O점과 C')

7. 저고리 중심선과 연결되는 반원은 저고리길이이며 또한 앞도련이 된다. (O O', O와 DD')
8. 중심선 O와 C에서 깃나비를 그리면 깃 상방나비가 된다.(R과 R')
9. 진동선과 연결하여 폼을 지나는 반원은 옆선 올림이 된다. (J와 D J'와 D')
10. 좌우 깃고대점 각을 이루는 곳에 깃나비를 결정한다. (T와 C)
11. 중심선과 가슴둘레선 교차점에서 깃이 교차되는 지점을 정한다. (깃나비+동정나비(깃나비의 5/8) + 진동의 여유분 +0.5cm(깃에 동정을 달았을때의 두께분))
12. 깃나비 상방 좌우 깃점에서 ⑥의 지점을 지나도록 V-zone을 그린다. (R과 H N' R'와 H M')
13. 걸깃 외연은 가슴둘레선까지 (R'M'), 안깃 내연은 걸깃 선이 닿은 곳까지 그린다.(R N')
14. ⑧의 V-zone에서 깃나비분(S S')을 그리면 ④의 깃고대점보다 약간 수정된다. (이각이 72° 가 됨)
15. 안깃은 걸깃과 깃이 연결된 걸깃선과 중심선의 1/2점(N N')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16. 왼팔의 꼭지점(O)에서 저고리 폼의 좌우와 깃 좌우 교차점을 이으면 반원이 된다. (O와 AHA')
17. 가슴둘레선과 왼팔의 꼭지점을 이어 원을 그리면 P점이 생기는데 이것은 소매부리 E'G'와 같다.(PB' =E'G')

〈표 4〉 남자저고리 원형 제도법의 설계

산출내용	원형설계	해당자료	비 고
산출방법			
원팔의 각도(깃고대각)	70° (깃나비수정후 72°)		저고리길이, 폼치수, 깃고대 결정
깃고대 산출식	$B/10$	W형, P.I형.	깃나비 수정후 $B/10+1$
깃나비 좌우 점침분(MH)	깃나비+진동의 여유분+동정 깃 두께+동정나비		11.3cm (6cm+2.5cm+0.5cm+2.3cm)
저고리 앞길이	원팔각 (O)에서 C'의 길이를 반지름 원과 만나는 중심선의 O'와C의 길이가 앞길이		B부터반원이 옆선과 만나는곳 O'까지가 옆선길이
확장(CC')		J형, W형, P.I형.	앞길 결정(CO')
폼	$B/4 + 2.5cm(B/2+5cm)$	O형, J형.	
진동	$B/4 + 2.5cm$	O형.	
깃나비에 대한 동정나비의 비율	8 : 5		깃나비가 6cm일 때 동정나비 2.3cm
깃길이	걸깃외연선(R'M')+깃고대상방나비(RR')+안깃의 연선길이(RN')		원형제도에서 길이 파악 가능

18. 소매배래곡선 F' 와 $G' = A'Q$

■ 깃 제도 방법

- (1) O O'는 중심선
- (2) 깃 상방나비에서 깃고대선과 나란히 좌우로 선을 연장한다(깃나비가 됨)
- (3) 걸깃 외연길이 A'C와 같게 A'C'를 그린다.
- (4) 걸깃 내연길이 B'H와 같게 B'H'를 그린다.
- (5) 안깃 외연길이 AD와 같게 AD'를 그린다.
- (6) 안깃 내연길이 BE와 같게 BE'를 그린다.
- (7) 안깃곡선 GE는 G'E'와 같다.
- (8) 안깃 DE는 D'E'와 같다.
- (9) 걸깃굴림 CH는C'H'와 같다.
- (10) 깃길이 = $A'C' + AA' + AD' = B'H' + BB' + BE'$

V. 결 론

이상으로 교수·학습자료에서 남자 저고리 원형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角度에 의한 저고리 제도법을 圖式으로 도출해 보았다. 여자 저고리에서와 같이 남자 저고리에서도 원뿔, 또는 圓을 이용하여 저고리를 설계하고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옷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의미있는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해보면 <표 4>와 같다. 이 圖式化는 맞춤 한복집에서 사용하는 치수의 逆算도 참고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원형구성에 대한 산출식의 부분적 수정과 깃중심 제도법,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구성방법은 모든 치수에 적용 가능하여 설계 기준의 확립과 제도법의 표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김영자, 한복의 황금비 분석에 의한 연구, 복식학회 「복식」 제8호, 1984, 12, p.49.
- 2)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 장학사, 1982, p.84.
- 3) 이년순, 피복구성을 위한 경부 형태의 관찰(제1보), 대한인간공학회지, vol 10, No3, 1991, 12, p.32.
- 4) 이은영, 「복식의장」, 서울, 교문사, 1996, p.353.
- 5) 조영아, 「어패럴 CAD」, 서울, 교학연구사, 1996, p.15.
- 6) 정옥임, 제도법 개선을 위한 저고리 깃구성의 재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4권, 4호,
- 7) 정옥임, 남자저고리 원형제도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1), 한국문화 교육학회지, 제1집 1998, pp.145-159.
- 8) 김주영, 복식조형의 시각효과에 대한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석사논문」, 1992, p.22.
- 9) 김문자, 조선시대 저고리 깃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2권 제5호, 1981, p.185.
- 10) 백금현, 옷깃과 옷설의 형태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2권 제 6호, 1985, p.105.
- 11), 12) 정옥임, 전게서.
- 13) 박금래, 한국남자 저고리 제작에 관한 연구, 충북대 논문집, 14, 1975.
- 14) 김분옥, 「한복구성」, 서울: 수학사, 1995, p.108.
- 15) 김분칠, 「한복구성」, 서울: 교문사, 1997, p.184.
- 16) 손경자, 「전통한복양식」, 서울: 교문사, 1996, p.178.
- 17) 이주원, 「한복구성」, 서울: 경춘사, 1997, p.176.
- 18) 박경자·임순영, 「한국의상구성」, 서울: 수학사, 1997, p.177.
- 19) 조정희, 「한복」, 서울: 형설출판사, 1996, p.182
- 20) 이영숙, 성인 남자 목부위의 연령별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18권 2호, 1994, pp.253-259.
- 21) 정옥임, 제도법 개선을 위한 저고리 깃구성의 재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4호, 1996, p.260.
- 22) 김주영, 복식 조형의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석사논문」, 1992, p.21.

